에너지경제연구원
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

에너지정보통계센터

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

Issue 39 / 2007.11.28

□ 스페인, 열병합발전 투자확대 계획

○ 스페인 열병합발전협회에 의하면 '12년까지 자국 열병합발전에 대한 투자액이 4억 5,000만 유로 이상일 것이라고 발표함.

- '08년에 개시될 열병합 건설로 스페인은 에너지 절약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켜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.
- 스페인은 열병합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 지 2년이 지났으나 '08년 국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병합발전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.

○ 동 프로젝트로 관련 설비는 862개에 달하며 지난해 보다 96 MW 증가한 6,028 MW가 될 것으로 전망됨.

- 현재 열병합발전의 '07년 전력판매량은 25,000 GWh로 예상되며 이는 자국 전력수요의 9%에 해당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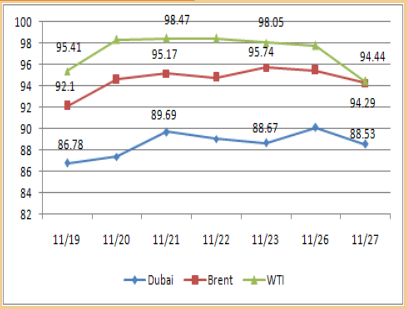
(Europa Press, 2007.11.22)

NEWS
- 스페인, 열병합발전 투자확대 계획
- 중국, 석유제품 수출 동결
- 이라크 석유수출 증가
- EU의 대러시아 에너지의존도 심화
- 영국, 세계최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승인
- 프랑스와 독일, 망분리 계획 반대
- 독일 전력업체,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
- 포르투갈, 10만 b/d의 베네수엘라산 석유수입
- 터키-그리스 가스 파이프라인 개통

ANALYSIS
- IPCC 지구온난화 대응 촉구
- 아·태 LNG 시장상황
- GCC 환율제도 변경 논의 대한 평가
- IEA World Energy Outlook 2007 분석

REPORT
-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

Oil Prices (Spot)



자료 : 한국석유공사

ASIA & MIDDLE EAST

□ 중국, 석유제품 수출 동결

○ 중국 정부가 최근 고유가에 따라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Sinopec과 Petrochina에 수출중단과 함께 공급확대를 요청했음.

- Sinopec과 Petrochina는 이에 따라 자사 정유공장에 생산량 확대를 지시하였음.
- Sinopec은 12월에는 20만톤의 석유를 추가로 가공해 1,450만 톤을 공급하기로 함.
- Petrochina는 4/4분기 석유가공을 3,225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7.1% 증대할 계획임.

○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석유제품 가격을 9~10% 인상했으나 여전히 국제유가 상승률에는 못 미침.

○ 전문가들은 이 두 석유회사가 수출로 이윤을 챙길 때가 아니라 국내 수급안정을 위한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을 지적하였음.

- 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국제유가와 국내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간 가격차이로 원가부담을 우려한 정유공장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지난 9월 이후 휘발유와 디젤이 극심한 공급난을 겪고 있음.

(AP, 2007.11.20)

□ 이라크 석유수출 증가

○ 이라크는 터키에 대한 북부지역 수출로를 재개한 이후에 석유수출이 약 2백만 b/d로 증가함.

- 현재 이라크의 석유수출은 180~190만 b/d로 이는 터키 자이한 항과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유전을 연결하는 송유관 수출로를 재개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.
- 지난 8월 북부지역 송유관 수출은 재개되었으며, 키르쿠크 유전에서 생

산되는 석유는 현재 전량 수출이 가능함.

○ 이라크는 현재 250만 b/d를 생산하고 있고 내년 말까지 3백만 b/d로 증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, 향후 6년 내 6백만 b/d까지 생산증대가 가능함.

(Al-Jazeera, 2007.11.21)

□ EU의 대러시아 에너지의존도 심화

○ 최근 EU의 대 러시아 에너지의존도가 심화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, 경제전반으로 볼 때 러시아 경제의 EU 경제권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음.

- 러시아는 EU 에너지시장에서의 세력 확장을 통해 EU 지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감소시키고자 함.

○ 러시아는 저가격의 장기공급계약을 내세워 EU 회원국과의 양자 에너지 협정체결에 주력함으로서 EU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, 이에 따라 EU가 러시아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감소하게 됨.

- 최근 이탈리아, 오스트리아, 헝가리, 불가리아가 러시아와 맺은 파이프라인 건설 및 가스 저장시설 계약은 EU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나부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정면 배치되는 것임.
- EU 회원국에 적용될 에너지계약과 사업협력 가이드라인 및 내부지침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
○ 한편, EU는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, 몰도바, 벨로루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럽의 전력망 및 송유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러시아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음.

(UPI, 2007.11.19)

EUROPE, AFRICA

□ 영국, 세계최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승인

○ 영국 정부는 친환경에너지 개발의 일환으로 웨일스 남부에 세계 최대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하였음.

- 350 MW급인 이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Prenergy 전력회사에 의해 웨일스 남부 Port Talbot에 $8억 3천만을 들여 건설될 것이며 '10년에 가동을 시작해 웨일스가 목표로 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70%를 공급할 전망임.
- 동 발전소는 매년 300만톤의 wood chip을 연료로 사용하게 될 것임.
- 영국 정부는 웨일스 가구 중 절반에 친환경 전력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.

(NYT, Reuters, 2007.11.21)

□ 프랑스와 독일, 망분리 계획 반대

○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9월에 채택한 에너지시장 개방정책은 이를 거부하는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음.

-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룹은 EDF 및 EON과 같은 거대기업을 수직 분할시키는 EU 집행위원회의 망분리 계획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원하고 있지 않음.
- 기업이 망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경영권은 다른 기업에 양도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함.

○ 프랑스는 EU의 정책실행 초기부터 자국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요구해 왔고 망분리를 지지했던 일부 국가들도 망에 대한 경영권을 각국 정부가 소유할 수 있도록 요구함.

- EU 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요구를 수렴하여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임.

(Les Echos, 2007.11.22)

□ 독일 전력업체,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

○ 독일 E.ON과 RWE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석탄 및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로 함.

- RWE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연간 최소 1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하였고, E.ON은 '10년까지 현재의 투자액을 2배로 확대하여 총 60억 유로를 그린에너지에 투자하기로 함.
- RWE의 프로젝트는 '08년 2월 1일에 창설될 RWE Innogy라는 자회사를 통해 실행될 것이며, E.ON은 E.ON Climate and Renewable이란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임.
- 현재 독일 발전량의 80%를 차지하고 있는 E.ON 및 RWE를 비롯하여 스웨덴 Vattenfall Europe, EDF가 대주주로 있는 EnBW는 풍력에너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수력 및 바이오매스에도 투자할 예정임.
- E.ON과 RWE, 기타 전력기업들은 원전폐지정책이 변경되더라도 예정대로 원자력 사용을 중지해야 함.

○ 독일은 현재 14%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'30년에 약 45%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.

- 유럽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RWE, Vattenfall, E.ON 순서임.
- RWE는 발전량의 60%를 석탄화력에 의존하고 있는데, '06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4,200만 톤을 기록하였음.

(Les Echos, 2007.11.21)

□ 포르투갈, 10만 b/d의 베네수엘라산 석유수입

○ 포르투갈의 Galp Energia는 5~10년 동안 자국 석유수요의 1/3인 약 10만 b/d를 베네수엘라로부터 공급받기로 함.

- 현재 포르투갈의 석유수요량은 약 31만 b/d이며, 베네수엘라는 10만 b/d를 수출하여 연간 $20억 이상의 석유를 판매하게 될 것임.

- 이외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Galp Energia가 Orinoco 유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할 계획이며, 이 경우 Galp Energia는 Orinoco유전의 지분 20%를 보유하게 되어 석유탐사와 생산, 수출이 가능하게 됨.
- PDVSA 또한 이번 계약을 계기로 포르투갈을 통한 유럽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임.

○ 이밖에도 포르투갈은 '13년 부터 연간 20억 ㎥의 베네수엘라산 LNG를 공급받기로 계약함.

(El Universal, 2007.11.22)

□ 터키-그리스 가스 파이프라인 개통

○ 터키와 그리스는 11월 18일 양국 국경에서 카스피 해에서 서유럽에 이르는 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식을 가졌음.

- 이는 유럽의 대 러시아 가스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임.
- 동 파이프라인은 연간 120억 ㎥의 천연가스를 수송하는데, 이중 30억 ㎥는 그리스로 수송되고, 나머지는 다른 유럽 지역으로 재수출됨.

○ EU는 세계 천연가스 소비의 40%이상을 차지하는 곳으로 이 중 러시아에서 절반가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몇몇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음.

- 그리스는 터키에서 들어오는 가스를 아드리아해 해저를 통과해 이탈리아까지 수송하는 연장 파이프라인을 '1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음.

(Al-Jazeera, 2007.11.18)

1. IPCC 지구온난화 대응 촉구

□ 개요

○ IPCC(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)는 17일 제27차 총회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하였음.

□ 세부내용

○ IPCC 발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 및 해수 온도와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으며, 북극해 빙하는 10년간 2.7% 가라앉았음.
-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인간의 활동으로, 이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'70~'04년간 70% 증가하였음.
- 온실가스 배출은 '30년에 현재의 2배가 될 것이며, 그 속도에 따라 2100년 지구 기온은 최대 6.4℃ 상승할 것임.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약 4℃ 상승할 것이며, 물 부족 및 식량 부족으로 생물종의 30%가 멸종할 것임.
- 현재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면 저비용의 탄소감축이 실현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, 정부의 가격정책(탄소세 도입 등)을 가장 효과적인 탄소감축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.

○ IPCC는 특히 항공기에서 가정용 등에 이르는 모든 배출원에 대한 세금부과를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음.

- IPCC 발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 온도는 6℃ 상승할 것이며, 따라서 탄소를 배출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세계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.

○ 동 보고서는 12월 발리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제출될 예정임.

□ 시사점

○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,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수단으로 쿄토메카니즘의 도입과 시행이 확대되고 있음.

- 이에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내 제반제도, 국제협력체제, 장기적 대응기반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음.

(IPCC, 2007.11.17)

2. 아·태 LNG 시장상황

□ 개요

○ '09~'10년 인도네시아 LNG 공급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말레이시아 및 호주의 신규 LNG의 도입경쟁이 심화되고 있음.

□ 세부내용

○ MLNG Ⅱ(Dua)

- 말레이시아 LNG (MLNG)는 일본 Osaka Gas와 EX-Ship(착선인도) 조건으로 '09년 4월에 시작으로 15년 동안 총 92만 톤의 공급계약을 체결함.
- 상기 계약에 대하여 충분한 LNG 물량이 있는가와 가격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됨.
- MLNG의 연간 7.8백만 톤의 Dua 플랜트는 Osaka의 공급을 위해서 '09년에 연간 1.2백만 톤을 증대할 계획임.
-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LNG 생산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Petronas의 feedgas 적정 공급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.

○ MLNG Ⅲ(Tiga)

- 또한 MLNG의 Tiga 프로젝트는 '06년 Shanghai LNG 컨소시엄(지분구조는 국영투자회사 Shenergy 55%, CNOOC 45%)과 25년간 연간 3.03

백만 톤의 공급계약을 체결함.

- MLNG는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서 장기간 지연되었던 연간 3.4백만 톤의 Tiga 트레인 2개의 건설이 요구됨.
- 가격에 있어서 MLNG는 완전 유가 연동으로 기준가를 배럴당 $60을 주장하고 있으며, 이렇게 될 경우 LNG 가격은 MMBtu당 $10~11 수준임.
- 이러한 가격정책은 Osaka와 다른 일본 구매기업과의 기존 계약에 적용되고 있으며, Osaka는 인도네시아로 부터 연간 130만 톤의 계약이 '10년에 만료되어 협상의 여지가 없음.
- '09년 말에 인도네시아로 부터의 공급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대만 CPC는 호주 Woodside의 Browse 프로젝트와 '13~'15년에 시작하는 15~20년의 연간 2~3백만 톤의 예비계약을 체결함.
- Browse 프로젝트는 Pluto 프로젝트와 같이 주요 환경승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만 CPC측은 중기계약을 선호하고 있어 예비계약에 많은 변수가 있음.

□ 시사점

○ 세계 LNG 시장이 판매자 시장으로 전환되고 인도네시아 LNG 생산의 감소 및 계약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아·태 지역의 LNG 도입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.

- 계약조건은 S-Curve가 아닌 유가완전연동제와 EX-Ship으로 구매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.

(World Gas Intelligence, 2007.11.21)

3. GCC 환율제도 변경 논의 대한 평가

□ 개요

○ 지난 18일 종료된 OPEC 정상회담에서 달러약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면서 걸프협력협의체(Gulf Cooperation Council, GCC)는 최근 기존의 달러고정환율제 변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.

- GCC 국가들의 환율제도 변경은 외환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여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우려를 확산시킴.

□ 세부내용

○ UAE는 최근 중앙은행을 통해 현재의 대미달러 고정환율제 적용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, 다른 GCC 국가들과 행보를 함께 하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함.

- GCC 국가들의 환율조정 논의 배경에는 달러약세에 따른 카타르, UAE, 사우디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- GCC 국가 중 처음으로 쿠웨이트는 지난 5월 달러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바스켓 통화 고정환율제를 단행하였으며, 이후 쿠웨이트 통화는 달러대비 약 5% 상승하였음.

- 이에 따라 다른 GCC 국가들도 기존 환율제도 변경을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미 달러환율을 평가절상하거나 GCC 통화를 유로화에 연동시키는 것을 구상하고 있음.

- GCC의 구체적인 대응 논의는 12월 3일~4일 간의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예정임.

○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이러한 두 가지 환율조정 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하였음.

- 첫 번째, 고정환율제를 유지한 채 평가절상을 단행할 경우 수입재 물가상승과 해외투기자본 유입을 일부 억제할 수 있으나 여전히 미국 FRB

금리정책을 참고해야 만 함.

※ 미국이 최근 수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대미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동국가 역시 금리인하를 고려해야 하지만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인해 금리인하를 단행하기 어렵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음.

- 또한 GCC 국가들의 물가상승이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크게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절상은 그 유용성이 부족할 수 있음.
- 두 번째, 유로화에 일부 연동시킬 경우 쿠웨이트와 같이 금리정책을 미국 FRB와 일부 별도로 유지할 수 있으나 달러약세를 더욱 가속화 시켜 최악의 경우 미국 자산의 붕괴와 유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.

※ 이러한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로화에 대한 연동을 반대하고 있음.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약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른 GCC 국가들로 확산될 경우 카타르와 UAE는 쿠웨이트의 사례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됨.

□ 시사점

○ 올해 달러약세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악화가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자금 유입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자 물가 상승의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.

○ 최근 중동 산유국들의 달러약세에 대한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음.

- 중동국가들이 유로화 연동을 통해 보유한 달러 외환을 매각할 경우 달러약세는 더욱 확대되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진행시킬 수 있음.

○ 한편, GCC 국가들의 이러한 논의는 최근 미국의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경고 및 이슬람권 간섭 등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.

(Economist.com, 2007.11.22)

4. IEA World Energy Outlook 2007 분석

□ 개요

○ Cambridge Centre for Energy Studies는 IEA의 'World Energy Outlook 2007' 의 수급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발표하였음.

□ 세부내용

○ 에너지수급 분석

- IEA의 '30년 화석에너지 50% 소비증가 전망은 현 증가율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많은 부분에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수급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함.
- IEA의 '30년 석유수요 115백만 b/d로의 증가전망은 중동평화정착과 러시아, 이라크, 이란 등이 완전 개방경제로 전환되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이 낮음.
- 국제유가의 경우 $60 이상에서 공급 가능한 중질석유의 매장량이 풍부하고, $75 이상에서는 석탄과 가스를 이용한 석유생산이 가능하여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으로의 상승은 어려움.
- '30년 원자력 비중이 6%에서 5%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현 미국의 관련 정책이 변하고 있으며, 유럽에서 원자력발전 제한정책이 폐지되는 경우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.

○ 기후변화 분석

-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는 한 '30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농도는 정책변화에 관계없이 IEA의 전망치대로 600ppm에 달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.
- 정책입안자들은 과거와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말미암은 평균기온 상승이 약 2℃가 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, IPCC는 '30년 기온상승이 5℃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견해임.

- 아직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미미하고, 최근 유가급등에 의한 석탄과 중질석유 사용증가는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의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.
- 지구온난화로 인한 폐혜는 증가하고 있으나, 수년 내에 정상회담 등에 의한 해결책 모색은 감지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향후 에너지 사용에 대한 최대의 과제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임.

□ 시사점

○ 향후 화석연료 사용증대에 따른 계속적인 대기 중 온실가스 누적은 필연적인 것으로 에너지이용의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.

○ 지구온난화에 대해 우리의 대응책을 강구하며 국제사회의 동향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.

(Financial Times, 2007.11.22)

1.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

□ 개요

○ '73년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에너지효율 정책은 최근 들어 에너지안보,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경쟁력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등장하였음.

□ 세부내용

○ 몇몇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정책 및 이행방안이 채택되어 시행된 바 있으나, '98년의 'Aarhus 유럽환경회의'에서 에너지효율 강화방식이 채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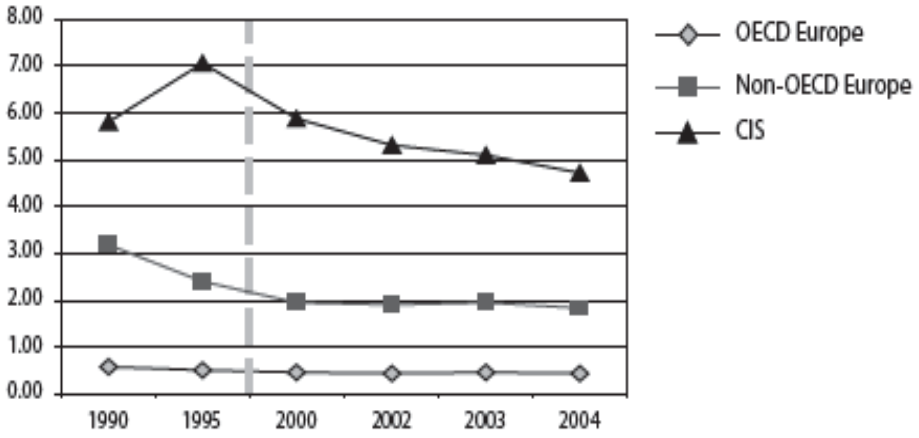
○ 효과적인 정책과 더불어 이해관계자들과의 강력한 협력관계의 구축과 같은 정부의 장기적 정책 시행의지가 필요함.

- 여러 부문의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정책의 시행은 매우 복잡한 과제임.
-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기술이용 및 최종소비자의 에너지절약 동기부여를 위한 에너지가격신호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시장방식의 효율적 정책시행이 요구됨.

○ '90~'04년 기간 중 에너지효율, 연료전환 및 구조적 변화를 포괄하는 에너지집약도는 유럽 국가들과 CIS 국가 전체에서 개선되어왔음.

- 동 기간 중 지역별 에너지집약도는 OECD유럽국가 13%, CIS 14.5%, 비OECD유럽국가 37.4%의 감소추세를 보임.
-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OECD 유럽국가는 4.4% 증가하였으나, CIS 국가는 30.9%, 비OECD 유럽국가는 각각 30.9%, 31.4% 감소하였으며, 탄소집약도는 모두 감소추세를 보임.

탄소집약도 추이



○ 미국은 '2005 에너지정책법'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조세감면 혜택과 엄격한 라벨링 요건을 도입하였음.

○ EU 역시 'Green Paper on Energy Efficiency', 'Action plan on Energy Efficiency, on energy policy, on climate change' 등의 입법과정을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계획을 준비 중임.

- EU회원국들은 최근 승인된 '에너지최종사용효율 및 에너지서비스지침'으로 '08~'16년 기간 중 최소 9%의 에너지절약목표를 설정하였으며, 충실히 이행될 경우 '30년 에너지수요는 '06년 보다 13% 감축될 전망임.

○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수송 및 환경과 같은 경제사회 정책분야와의 통합이 요구됨.

- 에너지효율강화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을 포함하는 정책수행체계와 실행에 필요한 자원이 요구됨.
- 재정적 유인제공과 결합된 규제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.
- 미국 주도하에 시행중인 'Energy Star' 라벨제도는 점차 국제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, 국제금융기관을 포함한 민관 협력을 통한 재원조달 및 에너지효율 장려, 혹은 연방-주정부간 정책협력이 건물부문 등에서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됨.

○ 산업부문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중요한 부문으로 유럽 배

출권거래제(ETS)에 대한 참여 확대를 통해 성취 가능함.

○ 수송부문은 온실가스배출량과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에너지효율정책에서 중요성이 크며, EU의 운행거리당 배출량제한조치 및 미국의 연비개정규정이 수송부문의 에너지수요를 억제하는데 유효할 것임.

- 차량 라벨링과 eco-driving, 바이오연료의 도입, 조세부과 등의 조치 또한 운송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기여할 것임.

○ 에너지효율 진흥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중요하며, 이를 통해 에너지효율 정책을 촉진하고, 국제적으로 기술개발과 재정적 협력을 강화해야 함.

□ 시사점

○ 에너지효율은 에너지안보와 온실가스배출 감축,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분야임.

○ 시장원리에 입각한 통합적 에너지효율정책이 필요하며, 변화하는 국제환경규제 하에서 연구개발, 기술 및 정책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통한 에너지효율증진 노력이 요구됨.

(Energy Charter Treaty, 2007.09)